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예수님께서서는 ...

유혹을 받으셨다.”(마르 1,13)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참회와 속죄의 생활로 예수님의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 제1주일에 듣는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과 시련을 겪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는데,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주로 겪으신 일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고 영광에 싸인 모습으로 공생활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훨씬 품위 있고 근사해 보일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당신 사명을 펼치기도 전에 사탄의 유혹과 시련에 맞서 싸워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야 한다.’는 말이 있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마수걸이처럼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일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미리 짐작해 보기도 합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유혹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공생활은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평탄치 않은 삶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나 시련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며, 복음의 원조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장차 그러한 걸림돌을 극복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또한 메시아로서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사탄이 앞보고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께 맞서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막으려하기에, 절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40일 동안의 유혹은 장차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그분을 반대하고 유혹하려는 이들과 그들로 인한 시련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특별한 선택을 받아 그분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유혹과 시련 때문에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유혹과 시련은,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하느님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사탄의 유혹과 시련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유혹이나 시련은 자칫 인간을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로 내몰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유혹과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리라는 신뢰를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특별히 주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을 간절히 청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믿음을 선물 받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운동 본당 황재모 안셀모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순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청하며 이 전례를 시작합니다.

입당성가 :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본기도

† 전능하신 하나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9장 8절-15절

안 내 :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며, 무지개를 구름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묵 상 : 하나님께서는 세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체결하신 계약에 항상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참을성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늘 충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제2독서 : 베드로 1서 3장 18절-22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며, 세례는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묵 상 :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거나 방해했던 것들을 우리 삶에서 말끔히 치워놓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와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마르코 1장 12절-15절

강론 : “예수님께서서는 … 유혹을 받으셨다.”(마르 1,13)(1-2쪽)

예물준비성가 :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 169번 ‘사랑의 성사’

영성체 후 묵상

사순절은 은혜의 때이며 신앙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거짓이 있다면 진리로 나아가야하고
나의 삶에 불의가 있다면 정의에로 나아가야하며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사랑에로
나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침묵>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나를 돌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 공소사목 성금

노재선님	50,000원	익명	100,000원
정태목님	200,000원	이석현님	100,000원
김종백님	100,000원	심평상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4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2018년 대신학교 입학생

- 김민우 베네딕도(춘양 본당)
- ※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8기 안동교구 신앙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2월 2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2월 24일/ 3월 10일/ 3월 24일/
4월 7일/ 4월 21일/ 5월 12일/
5월 26일/ 6월 2일 - 총 8회
- 장소 : 휴천동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북부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북부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지구 구역 반장연수

- 문경지구 : 2월 25일(주일) 점촌동 성당
- 상주지구 : 3월 4일(주일) 계림동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 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3월 5일(월) 13:30 - 6일(화) 13:00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포항)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참가비 : 45,000원
- 신청 : 2월 28일(화) 사목국으로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교구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신청 : 3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정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2월 26일(월) 20:0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이상욱 엘리야(서울대교구)

■ 2018년도 레지오 마리아 Pr. 간부 직책 교육

- 일시 : 3월 3일(토) 10:00 - 14:40
- 장소 : 가톨릭창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간부 (가능하면 신입 Pr. 단장, 부단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엘레회의 준비(해당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 일시 : 3월 4일(주일) 15: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미사준비
- 신청 : 2월 26일(월)까지 사목국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 새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이다.”(마태 24,12)

사순 시기는 온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 갈 것이다”(마태 24,12).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큰 환난을 예언하시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부딪히게 될 상황, 곧 커다란 시련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많은 이의 마음속에서 식어 가는 상황을 묘사하십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은 “뱀을 부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히 움직여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또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대해 쉽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곧 전혀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들을 팔고 다니는 이러한 사기꾼들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 곧 존엄과 자유와 사랑하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요한 8,44)인 악마는 언제나 악을 선인 체, 거짓을 진실인 체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차가운 마음

어떻게 우리 안의 사랑이 식어 가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1티모 6,10)인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곧이어 하느님과 그분의 평화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보다는 스스로 황폐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도 식을 수 있습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저는 이러한 사랑의 부재에 관한 가장 명

확한 징표들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표는 이기심, 영적 나태, 무익한 비관주의, 자기몰두에 대한 유혹, 우리 사이에 지속되는 싸움, 단지 겉치레에만 신경을 써서 선교 열정이 줄어들게 하는 세속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머니이자 스승인 교회는 진실이라는 쓴 약과 더불어 사순 시기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이라는 달콤한 치료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 마음에 숨겨진 거짓말과 자기기만의 형태를 근절하고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선’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선이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우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돌보시는 하느님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신다면, 그분께서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식’은 폭력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식은 우리를 누그러뜨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단식은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합니다. 단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단식은 하느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 시기의 불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이어 나가며 사순 시기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때때로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 식탁에서 양분을 얻어,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 희망, 사랑으로 불타게 하소서.

바티칸에서
2017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프란치스코



새벽 출근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오단 목주를 돌리며, 찬 새벽공기에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으로 길모퉁이를 돌아 서니, 앞길이 대낮처럼 밝아서 나는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어제 밤에 하늘을 뚫고나와 아직 귀가 하지 않은 채, 어둡한 새벽길을 흰히 비추며 곧, 땅으로 내려앉을 것만 같은 커다란 보름달과 마주하게 되다니, 어찌나 고맙고 반가웠던지 갑자기 행복을 잔뜩 품에 안은듯하였다.

요즘 새벽 여섯시 반쯤이면 어스름한 회색빛, 인적 드문 길을 혼자 집을 나서기가 조금은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새벽잠이 많아 새벽 미사를 드린 적은 여태껏 열 손가락 안에 들고, 일찍 떠나는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면 아예 밤을 꼬박 세기까지 하던 내가, 직장 때문에 이른 새벽길을 나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홀로 쓸쓸히 걷던 출근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기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보름달이 성모님의 품같이 느껴져 함께 걷는다는 기분에 외로움도 잊은 채, 나는 행복한 미소를 달에게 띄워 보낸다. 동짓달 보름이 하루 지난 뒤라 그런지 모양과 크기도 아직 보름달 그대로인 듯하다.

달이 밝히는 길을 따라 동네빵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가게 안엔 희미한 미등이 켜져 있었는데, 빵 굽는 냄새가 새벽 공기와 함께 코를 자극하였다. 아마도 이른 새벽부터 빵집에 불이 켜진 것은 오늘 빵 주문이 많은 것이 틀림없다고 혼자 생각에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다보니, 텅 비어있는 첫차는 새벽 정적을 깨우며 연달아 두세대씩 목적지를 향해 줄지어 떠나고, 밤새 뽁뽁 얼어붙은 길바닥을 빗질 하고 계시는 환경 미화원 아저씨, 범절 없는 사람들의 흔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담배꽂초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쓸어 담고 계셨는데, 행복한 이 기분으로 수고하신다고 먼저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낯선 여인네의 아침인사가 어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참고 지나갔다.

새벽을 방황하는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두 명이 그 시간에 불 켜진 오락실을 들어가고 있었다. 자식을 두고 있는 엄마로서 가슴이 짠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관한 마음만 시리다.

출근길에서 만난 세 사람을 떠올려보았다. 조용한 새벽공기가 무척 차게 느껴졌다. 나는 걸음을 더 재촉하였다. 빨간 신호등을 만났다. 아무도 보는 이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었다. 나 혼자 초록색등을 기다리고 서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 그냥 건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새벽길에 절대 무단횡단 하지 말라며 당부하던 남편 생각이 나서 참고 기다렸다.

며칠 전에 내렸던 눈이 도로변 여기저기 얼어붙어 있고, 찬바람이 시린 얼굴을 에어 싸게 하는 신호등 앞에서도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요즘 다리를 다쳐 집에서 재활치료중인 남편이 차려준 부드러운 계란찜과 청국장, 김치만으로도 감사했던 아침밥상에 어제 끓여 두었던 대추차 한 병을 따뜻이 데워 보온병에 담아 손에 쥐어주던 그 마음이 고마워 이것이면 오늘의 피로는 다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초록색 불이 깜박 거렸다.

빠른 걸음으로 언 땅을 깨우며, 오늘을 시작하는 나에게, 성모님의 온아함이 함께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한 기분처럼 그들도 행복 했으면 좋겠다.

간단한기도만 드리고 집을 나섰던 나는, 오늘도 외롭지 않았던 새벽 출근길, 주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던 그 길을 마음속에 담아본다.

길을 밝혀주던 보름달 덕분에 행복했었고, 길에서 만났던 환경 미화원 아저씨와 청소년들과, 남편이 챙겨준 아침밥상과 따뜻한 대추차 한 병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 주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비록 찬바람 맞으며 홀로 걷는 새벽 길 일지라도 성모님 함께 하는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